

……佛 教 第 三 十 一 號……

四、伏 虎

長看低眼、
坐得盤陀冷！
眼著團黎入定。

노보아도 조울교
盤石우에 안졌네。
그압해 호랑이는 불려도 對答안교
定에든 스님만 보고들 잇고나

堂堂月照空林。
琅琅泉奏鳴琴。
後夜欠伸一吼。
眼前大地平沈！

堂堂히 달빛은 空林에 비취고
琅琅한 샘물은 거문고를알의내
셀리에 소리치고 기저개커나
눈압해 大地는 갈아물안네。

右調「清平樂」

海 的 慈 母

(普陀山錫麟禪院에서)

蜀山中에 내가나서
山만보고 바다뜻밖네
오솔날 처음보니
엇더케 壯快한지！
汪汪한 제물은
緣塵조차 쏘려업고
빈계벗은 이한물은
輕雲다만 업히었네
저어다볼수록 高明안하고
내려다볼수록 澎湃만하에
알수업서라 이것이海水인가？
알수업서라 이것이情愛인가？
나는이물 輕을할수업서
인하의 慈母의바다」라했다。

支 那 吳 芳 吉 原 著
天 愛 生 翻 譯

바다스 가운데 이내가있서
우리의 어머니 바라볼싸나
멀리로아득 눈모자라재
하늘에의선심 바라외이네
내가나서 열세살까지
어머니와함세 居處했네
이내살오른 어머니의팔매고
어머니의 품속에서
재스갈재스갈 鸚鵡가치
어머니의 팔뚝은
떨저떨해지시교

……佛 教 第 三 十 一 號……

